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3, Vol. 27, No. 3, 75-86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의자의 심리특성 연구*

김 고 은[1)] 이 상 현[2)] 김 재 홍[2)] 최 훈[2)] 방 철[2)] 이 장 한[1),†]

[1)]중앙대학교 심리학과 [2)]대검찰청 심리분석실

본 연구는 실제 범죄사건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태/특질 불안, 수치심/죄책감, 기만/조종, 그리고 방어성향 척도를 사용하여 일반인 집단 157명과 용의자 집단 146명의 심리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용의자 집단 중 실제 거짓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 집단과 진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용의자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상태 불안수준, 수치심 및 죄책감, 그리고 방어성향은 높고 기만성향은 낮았으나, 거짓 집단과 진실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용의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불안을 느끼며 방어적인 태도와 함께 낮은 기만성향을 보이려는 긍정적인 인상관리 전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용의자 집단이 거짓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심리상태를 지니고 있어 거짓말 탐지상황이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주요어 : 거짓말 탐지, 거짓말 탐지검사, 불안, 심리특성, 인상관리

---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공공복지안전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M3A2A1051124).

† 교신저자: 이장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Fax: 02-816-5124, E-mail: clipsy@cau.ac.kr

www.kci.go.kr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Ekman, 2001), 특히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농담을 하거나 악의 없이 일상적으로 하는 '사회적 거짓말(social lies)'과 달리, 이러한 거짓말은 '심각한 거짓말(serious lies)'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있다(Granhan & Stromwall, 2004).

거짓말한 자와 진실자의 행동 반응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Buller, Burgoon, White, & Ebesu, 1994) 거짓말한 자의 경우, 거짓말을 할 때 특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짓말한 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 또는 타인을 속였다는 즐거움 등과 같은 정서를 느끼는데(Ekman, 2001), 가장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거짓말한 자는 자신의 거짓말이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기 힘들거나 거짓말로 인한 이득이 클 경우, 그리고 발각되었을 때의 처벌이 가혹한 경우에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과 함께 느끼는 정서가 죄책감인데, 대개 사람들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외에도 거짓말을 할 때 긍정적인 정서 또한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로는 남을 속였다는 즐거움이 있다. 속이는 기쁨은 거짓말의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안도감이나 거짓말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다(Ekman, 2001).

폴리그래프[1]는 거짓말 관련 정서적 경험이 유발하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거짓말 유무를 판단하도록 고안된 장비이다(Bull, 1988). 다시 말해, 폴리그래프는 거짓말 그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의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흥분, 초조, 불안감을 호흡반응, 피부전기활동, 심장혈관활동, 그리고 손가락맥박 등과 측정 가능한 반응을 통해 기록하여 이를 검사관이 분석 및 판독하여 진위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Ben-Shakhar & Furedy, 1990).

거짓말 탐지검사관이 용의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있어, 거짓말 탐지검사의 정확성을 자신 있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순수하게 폴리그래프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거짓말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였을 때 거짓말한 자를 알아낼 확률은 약 75% 정도이며 진실한 사람을 가려낼 확률은 약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id & Orne, 1981). 이렇듯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원래 성격특성으로 인해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거나, 진실한 사람이 거짓말한 사람과 유사한 행동이나 반응을 보여 탐지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유사한 반응으로 인해 진실을 말하는 용의자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을 허위긍정(false positive)의 오류라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검사는 허위 긍정의 오류가 높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허위 긍정의 오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다양한데, 거짓말 탐지검사의 경우, 다른 생리측정 도구와 마찬가지로 피검사자에게 기기 및 센서를 부착하므로 불안과 같은 정서를 유발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허위 긍정의 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Raskin, 1982; Raskin, Barland, & Podlesny, 1976). 또한, 수사상황에서 용의자가 지닌 본래의 개인적 특성을 거짓말한 자의 특성으로 오해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거짓말 탐지기라고도 불림

www.kci.go.kr

거짓말을 한다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를 Brokaw 위험(Brokaw's hazard)이라고 한다(Ekman, 2001). 이와 함께, 수사상황에서 무죄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닌 긴장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진실한 사람을 자신의 거짓말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Othello의 오류(Othello's error)라고 지칭한다(Ekman, 2001).

이처럼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은 용의자의 심리상태를 변화시켜 면담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Gudjonsson & Mackeith, 1997),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주로 불안, 수치심, 인상관리와 같은 심리상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Gudjonsson, 2003; Hartwig, Granhag, Stromwall, & Doering, 2010), 불안과 죄책감이 심한 경우, 정신장애를 유발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결국 허위자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Gudjonsson, 2003). 용의자는 수사상황의 예측 불확실성과 오판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Inbau, Reid, Buckley, & Jayne, 2001). 게다가 용의자가 수사상황 동안 수사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거나, 기본 욕구충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용의자의 불안은 증가한다(Sommer, 1969; Irving & Hilgendorf, 1980).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죄 용의자는 수사상황에서 유죄로 판단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뿐만 아니라 수사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안을 경험한다. 또한 수사상황에서 무죄 용의자는 현재 처한 사건과는 무관한 과거에 저질렀던 위반이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Gudjonsson 등(1993)은 실제 경찰서에 구금된 용의자 164명의 정신상태, 지적 기능, 읽기 능력, 특질 및 상태 불안, 심문 피암시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한 결과, 약 20%의 용의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불안을 보였다. 이처럼 수사상황에 처한 용의자는 유무죄에 상관없이 높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포 및 구금과정에서 용의자는 불안과 함께 개인의 신념 및 자존감 손상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다(Gudjonsson & MacKeith, 1982). 특히,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정직하고 존경받는 자아 정체감을 지닌 개인의 경우, 경찰에 의해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체포 경험 그 자체가 충격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용의자가 지닌 완벽성에 대한 신념이 손상되어 정신적 외상을 발생시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Gudjonsson & MacKeith, 1982). 또한 개인은 범죄자로 취급받았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체포 상황 그리고 구금 경험 그 자체와 함께 중요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Simon, 1993).

용의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때 불안과 수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수사관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시도하기도 한다. 인상관리란 타인이 지니고 있는 인식에 영향을 주는 행동 중의 하나로써(Piwinger & Ebert, 2001), 인상관리를 시도하는 개인은 검사를 받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왜곡된 반응을 한다(Mueller-Hanson, Heggestad, & Thornton, 2006). 특히, 반응 왜곡(response distortion)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 검사에서 많이 나타나며, 응답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방향으로 왜곡된 반응을 한다(Razavi, 2001). 이러한 반응 왜곡의 내용이나 정도는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McFarland & Ryan, 2000). 즉, 응답자의 반응은 조사를 받는 환경이나 응답자가 조사 목적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www.kci.go.kr

(Razavi, 2000).

이와 같이 용의자는 인상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인상관리의 종류는 개인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 그리고 유무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Hartwig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정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유죄와 무죄 집단 모두 수사상황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두 집단 모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형성을 위해 유죄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은 비언어적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만, 이 중 유죄 집단만이 범죄관련 단서에 대한 언어적 행동을 통제하려는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유무죄 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용의자가 수사상황에서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안, 수치심 및 인상관리뿐만 아니라 거짓말한 자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기만 및 조종 (DePaulo et al., 1996),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발생하는 죄책감(조은경, 2002)과 같은 용의자의 심리특성이 실제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기만 및 조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거짓말에 대해 허용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속임 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istie & Geis, 1970). 그들은 특히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속임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도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DePaulo, Stone, & Lassiter, 1985). 본 연구는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 범죄를 수행한 거짓말 집단에게 그들이 사용한 인상관리 전략을 구두로 물어본 선행연구(Hartwig et al., 2010)와는 달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불안 및 수치심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우 (Gudjonsson & MacKeith, 1982; Gudjonsson, Clare, & Pearse, 1993), 신뢰로운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알아보았지만 일반인 집단과 비교하지 않아, 심리특성을 용의자만의 특징으로 확정짓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해 거짓말 탐지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일반인과 거짓말 탐지상황 내 용의자를 비교하여 수사상황에서 보이는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알아보았으며, 용의자의 심리특성이 거짓말 탐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 집단 내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의 심리특성을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일반인 157명과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및 각 지방 검찰청에 거짓말 탐지검사를 받으러 온 용의자 148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일반인 집단의 경우 서울 소재 C대학교의 학생과 경남 소재 S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작성 후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 되었다. 연령이 기입되지 않은 2명의 용의자 데이터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일반인 157명과 용의자 14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의자 집단은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 따라 거짓 집단 42명, 진실 집단 49명, 그리고 판별불가 집단 55명으로 분류하였으며 추가 분석은 판별불가 집단을 제외한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상태-특질 불안 척도(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이 척도는 Spielberger(1977)가 개발하고 김정택(1978)이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로써, 특정 시간

www.kci.go.kr

동안 일정한 강도로 일어나는 상태불안(‘나는 불안하다’, ‘나는 아주 긴장되어 있다’ 등)과 비교적 안정된 경향의 특질불안(‘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나는 우울하다’ 등)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 각각 2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상태불안이 .93 그리고 특질불안이 .89였다.

개인 느낌 질문지(Personal Feeling Questionnaire 2: PFQ-2)

이 질문지는 PFQ(Harder & Lewis, 1987)를 Harder와 Zalma(1990)이 수정 및 보완하고 심종온(1999)이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로써, 수치심 경향성과 죄책감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다(‘가벼운 죄책감을 느낀다’, ‘후회스럽다’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0점(전혀 느끼지 않는다)에서 4점(거의 항상 느낀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다.

기만/조종 척도(Manipulativeness Scale)

이 척도는 Gonza(2001)의 연구를 기반으로 김민경(2010)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써,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타인을 속이고 조종하는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하위 요인은 사회적으로 교활하고 기만적인 성격을 측정하는 사회적 기만 척도(13문항, ‘나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종종 즐기는 척을 한다’ 등)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무관심하고 냉담한 성격을 평가하는 조종(마키아벨리즘) 척도(15문항,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출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66이었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이 검사는 성격 특성과 정신병질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기 보고식 심리검사(566문항)로써 10개의 임상 척도와 3개의 타당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방어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도 척도인 L척도 15문항(‘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정도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 등)과 K척도 30문항(‘가끔 어린 아이로 되돌아갔으면 한다’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L척도가 .37 그리고 K척도가 .75였다.

실험절차

일반인 및 검찰청 심리 분석실을 방문한 용의자 집단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용의자 집단의 경우는 거짓말 탐지검사를 받기 전에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일반인과 용의자 집단의 설문지 작성이 끝난 후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관련성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82문항을 선별하였다. 최종 문항 선별 후, 일반인 집단의 점수를 준거로 하여 집단별 점수차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 집단의 원점수 별 표준점수를 산출 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용의자 집단의 점수를 환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인 및 용의자 집단, 그리고 거짓 및 진실 집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척도별로 선별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요인 부하량이 낮거나 문항 내 일치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분명한 요인부하 패턴을 보이는 문항만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에는 특질불안 15문항, 상태불안

www.kci.go.kr

17문항, 수치심 및 죄책감 6문항, 기만 10문항, 조종 8문항, L척도 9문항, 그리고 K척도 17문항이 포함되었다. 집단별 심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로 문항 총점의 표준점수를 구한 뒤, 등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그값으로 치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15.0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였다.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의자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 집단과 용의자 집단의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의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집단 간 심리특성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 미치는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 157명의 평균 연령은 42.47세(SD=6.91)였으며 남성 128명과 여성 29명이었고, 용의자 146명의 평균 연령은 42.29세(SD=11.66)였으며 남성 122명과 여성 22명이었다. 또한, 용의자 집단 내 진실 집단 49명의 평균 연령은 42.82세(SD=12.10)였으며 남성 40명과 여성 9명이었고, 거짓 집단 42명의 평균 연령은 39.19세(SD=12.34)였으며 남성 30명과 여성 9명이었다. 분석 결과, 일반인 집단과 용의자 집단, 그리고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의 성별과 나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인 대 용의자의 심리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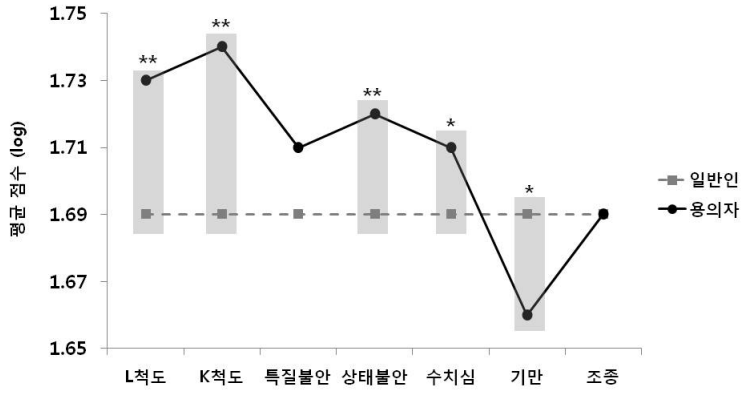
특질 불안, 상태 불안, 수치심 및 죄책감, 기만, 조종, L척도, K척도 점수의 평균(표준편차)과 두 집단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 불안, 수치심 및 죄책감, 기만, L척도, K척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301)=-3.45$, $p<.001$, $t(286.76)=-2.18$, $p<.01$, $t(301)=2.35$, $p<.01$, $t(301)=-4.45$, $p<.001$, $t(301)=-5.05$, $p<.001$. 다시 말해, 용의자 집단이 일반인 집단보다 상태 불안, 수치심 및 죄책감, L척도, K척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집단보다 더 낮은 수준의 기만을 보고하였다. 반면에 특질 불안과 조종 척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 일반인과 용의자의 척도 별 평균(표준편차) 차이 비교

	일반인 집단 (N=157)	용의자 집단 (N=146)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L척도	1.69(0.09)	1.73(0.08)	-4.45**
K척도	1.69(0.09)	1.74(0.09)	-5.05**
특질 불안	1.69(0.09)	1.71(0.09)	-1.65
상태 불안	1.69(0.09)	1.72(0.09)	-3.45**
수치심 및 죄책감	1.69(0.08)	1.71(0.10)	-2.18*
기만	1.69(0.10)	1.66(0.12)	02.35*
조종	1.69(0.12)	1.69(0.12)	0.06

*$p<.01$, **$p<.001$

www.kci.go.kr



*p<.01, **p<.001

그림 1. 일반인 집단과 용의자 집단의 척도 별 평균 점수

t(301)=-1.65, *n.s.*, t(301)=0.06, *n.s.*.

진실 집단 대 거짓 집단의 심리특성

특질 불안, 상태 불안, 수치심 및 죄책감, 기만, 조종, L척도, K척도 점수의 평균(표준편차)과 두 집단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척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실제 거짓 유무에 따른 척도 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후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회귀 모형이 수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χ^2=13.255, p=.07)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특질 불안, 상태 불안, 수치심 및 죄책감, 기만, 조종, L척도, K척도는 실제로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을 분류하는 예측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치심 및 죄책감(p=.06)과 K척도(p=.06)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을 판별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치심 및 죄책감 수준이 높을수록 거짓 집단으로 분류될 경향이 있고, K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진실 집단으로 분류될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진실 집단 대 거짓 집단의 척도 별 평균(표준편차) 차이 비교

	진실 집단 (N=49)	거짓 집단 (N=42)	t
L척도	1.73(0.09)	1.75(0.06)	1.16
K척도	1.75(0.09)	1.74(0.09)	-.70
특질 불안	1.71(0.10)	1.70(0.09)	-.16
상태 불안	1.71(0.10)	1.73(0.09)	1.06
수치심 및 죄책감	1.70(0.10)	1.74(0.10)	1.84
기만	1.66(0.14)	1.66(0.11)	-.16
조종	1.69(0.10)	1.72(0.08)	1.72

www.kci.go.kr

표 3.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 대한 용의자 심리특성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Wald	*p*	Exp(B)
L척도	-6.66	3.77	3.12	.08	0000.00
K척도	6.99	3.73	3.52	.06	1083.77
특질 불안	3.45	3.74	0.85	.37	0031.53
상태 불안	-4.46	4.13	1.17	.28	0000.01
수치심 및 죄책감	-5.58	2.95	3.58	.06	0000.00
기만	0.34	1.93	0.03	.86	001.40
조종	-3.17	2.81	1.28	.26	0000.04

논 의

본 연구는 실제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인과 용의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안, 수치심 및 죄책감, 기만, 조종 그리고 방어 성향을 측정하여 일반인과 용의자, 그리고 용의자 내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짓말 탐지상황의 용의자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상태 불안, 수치심 및 죄책감, 방어 성향과 낮은 기만 성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용의자가 불안을 느끼고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심리특성이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거짓말 탐지상황의 용의자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불안을 보고하였으며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 모두 일반인보다 높은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는 수사상황에서 용의자가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Gudjonsson, 1993)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수사상황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용의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러한 예측 불확실성은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용의자의 높은 불안이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의 유사한 불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결과, 불안이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진실 집단의 불안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불안 이외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nbau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진실 집단은 거짓말 탐지상황의 예측 불확실성과 과거 위반에 대한 발각의 두려움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는 반면, 거짓 집단은 탐지상황의 예측 불확실성 및 거짓말이 발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을 경험한다고 하였다(Ekman, 2001).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거짓말 탐지검사에서 진실 집단의 높은 불안수준으로 인해 오판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뿐만 아니라 수치심 및 죄책감 수준에서도 수사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일반인과 거짓말 탐지상황의 용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Gudjonsson,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과거 수사관들은 수사상황에서 용의자의 저항을 줄이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면을 박탈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했으며(Leo, 2004), 이러한

www.kci.go.kr

비인격적이고 혹독한 수사상황이 용의자에게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상황은 과거와 달리 비강압적이고 심리적인 수사상황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집단에게 수치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법이 아닌 수사상황에 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용의자의 완벽한 자아에 대한 신념이나 자존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불안 및 수치심 외에 용의자 집단이 인상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거짓말 탐지상황의 용의자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방어적 성향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상관리 전략인 반응 왜곡으로 볼 수 있다(Razavi, 2001). 반응 왜곡이란 검사상황에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응답을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용의자 집단은 높은 방어적 성향으로 인해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진실된 반응을 하지 않고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왜곡된 반응을 보였다. 즉, 용의자 집단의 낮은 기만 수준은 용의자의 진실된 반응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형성을 위해 기만 성향이 낮은 것처럼 왜곡하여 응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Gudjonsson, 1996; Hartwig et al., 2010)과 달리 본 연구에서 용의자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사용한 도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구두 질문을 통해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는 높은 신뢰도를 지닌 척도에서 선별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신뢰성 높은 측정도구와 일반인 집단의 표준화된 점수를 통해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함으로서 용의자의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밝힐 수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거짓말 탐지검사를 받기 전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의자의 기저선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사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일반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 외 수사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의자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용의자를 범죄 유형에 따라 나누지 못했는데, 추후에는 이를 보완하여 범죄 유형별로 용의자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불안이 거짓말 탐지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회귀분석 결과를 볼 때, 진실 집단과 거짓 집단의 다른 불안 원인과 내용을 밝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여 거짓말 탐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범죄 수사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의자의 심리특성을 확인한 경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거짓말 탐지상황에서 나타나는 용의자의 높은 불안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짓말 탐지검사는 수사상황에서 나타나는 진실 집단의 높은 불안 때문에 진실한 자를 거짓말한 자로 오판하는 허위 긍정의 오류율이 높다는 단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진실 집단이 거짓 집단과 마찬가지로 높은 불안을 경험하지만, 높은 불안이 거짓말 탐지 검사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진실 집단의 불안이 야기하는 긍정오류의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검사의 정확성 및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민경, 이장한 (2010). 기만/조종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3B), 1339-1349.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종온 (1999).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경 (2002). 거짓말의 특징과 탐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33-65.

Ben-Shakhar, G., & Furedy, J. J. (1990). *Theories and applications in the detection of deception*. New York: Springer-Verlag.

Blasingame, G. D. (1998). Suggested clinical uses of polygraphy in community-based sexual offender treatment program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0*(1), 37-45.

Bull, R. (1988). *What is the lie-detection test? In A. Gale (Ed.), The polygraph test: Lies, truth, and science*. London: Sage Publications.

Buller, D. B., Burgoon, J. K., Ebesu, A. S., & White, C. H. (1994). Interpersonal deception: VII. Behavioral profiles of falsification, equivocation, and concealment.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3*(4), 366-395.

Christie, R., & Geis, F. (1970). *Studies in machiavellianism*. New York: Academic Press.

Davison, S. E., & Forshaw, D. M. (1993). Retracted confessions: Through opiate withdrawal to a new conceptual framework.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33,* 285-290.

DePaulo, B. M., Stone, J. L., & Lassiter, G. D. (1985). Deceiving and detecting deceit. In B. R. Schenkler, *The self and social life*. New York: McGraw-Hill.

DePaulo, B. M., Kashy, D. A.. Kirkendol, S. E., Wyer, M. M., Epstein, J. A. (1996). Lying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979-995.

Ekman, P. (2001). *Telling lies: clues to deceit in the marketplace, politics and marriage.* New York: Norton and Company.

Gonza, L. F., Vrij, A., & Bull, R. (2001).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perception of lying in everyday life in a high stake situ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1,* 1203-1216.

Granhag, P. A., & Strömomwall, L. A. (2004). *The detection of deception in forensic contex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udjonsson, G. H. (1996). Psychological evidence in court: Results from the 1995 survey. *The Psychologist, 5,* 213-217.

Gudjonsson, G. H. (2003).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A handbook.* Chichester, England: Wiley.

Gudjonsson, G. H., & MacKeith, J. A. C. (1982). False confessions: Psychological effects of interrogation, a discussion paper. In A. Trankell (Ed.), *Reconstructing the past: The role of psychologists in criminal trials.* Deventer: Kluwer.

Gudjonsson, G. H., & MacKeith, J. A. C. (1997). *Disputed confessions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London: Institute of Psychiatry.

Gudjonsson, G. H., Clare, I. C. H., & Rutter, S. (1994).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terviewed at police stations: A factor-analytic study.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5*(3), 517-526.

Gudjonsson, G. H., Clare, I. R. S., & Pearse, J. (1993). *Persons at risk during interviews in police custody: The identification of vulnerabilities.* London: HMSO.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www.kci.go.kr

729-745.

Harder, D. W., & Lewis, S. J. (1987).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Hillsdale, NJ: Erlbaum.

Hartwig, M., Granhag, P. A., Strömwall, L. A., & Doering, N. (2010). Impress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On the strategic self-regulation of innocent and guilty suspects. *Open Criminology Journal, 3,* 10-16.

Hinkle, L. E. (1961). The physiological state of the interrogation subject as it affects brain function. In A. D. Biderman & H. Zimmer (Eds.), *The manipulation of human behaviour.* New York: Wiley.

Inbau F. E., Reid, J. E., Buckley, J. P., & Jayne, B. P. (2001). *Criminal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Gaithersburg, MD: Aspen.

Leo, R. A. (2004). The third degree. In G. D. Lassiter (Ed.), *Interrogations, confessions, and entrapment*. New York: Kluwer.

McFarland, L. A., & Ryan, A. M. (2000). Variance in faking across noncognitive measu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812-821.

Mueller-Hanson, R. A., Heggestad, E. D., & Thornton, G. C. III.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ression management: An exploration of the psychological process underlying faking. *Psychology Science, 48,* 288-312.

Piwinger, M., & Ebert, H. (2001). Impression management: Wie aus niemand jemand wird. In B. Guenther et al. (Eds.), *Kommunikationsmanagement: Strategien, wissen, lösungen.* Neuwied: Luchterhand.

Raskin, D. C. (1982). The scientific basis of polygraph techniques and their uses in the judicial process. In H. D. Kimmel, E. H. Van Olst & J. F. Orlebeke (Eds.), *The orienting reflex in humans.* Hillsdale, NJ: Erlbaum.

Raskin, D. C., Barland, G. H., & Podlesny, J. A. (197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etecting of deception (Final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Razavi, T. (2001). *Self-report measures: An overview of concerns and limitations of questionnaire use in occupational stress research.* Southampton, UK: University of Southampton.

Redlich, A. D., & Meissner, C. A. (2009). Techniques and controversies in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The artful practice versus the scientific study. In J. Skeem et al. (Ed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courtroom: Controversies and consensus*. New York: Guilford Press.

Shallice, T. (1974). The Ulster depth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their relation to sensory deprivation research. *Cognition, 1*, 385-406.

Simon, R. (1993). The psychological and legal aftermath, of false arrest and imprisonment. *Bulletin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Law, 21*(4), 523-528.

Spielberger, C. D. (1977). Theory and measurement of anxiety states. In R. B. Cattell & R. M. Dreger (Eds.), *Handbook of modern personality theory*. New York: Wiley.

Waid, W. M., & Orne, M. T. (1981). Cognitive, social, and personality processes in the 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1 차원고접수 : 2013. 02. 25.
수정원고접수 : 2013. 08. 01.
최종게재결정 : 2013. 08. 19.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3, Vol. 27, No. 3, 75-86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spects Under Lie Detection Situation

Go-eun Kim[1] **Sang Hyun Lee**[2] **Jae Hong Kim**[2]
Hoon Choi[2] **Cheol Bang**[2] **Jan-Han Lee**[1]

[1]Chung-Ang University [2]Forensic section, S.P.O. in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spects under lie detection situations. For thi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157 ordinary people and 146 suspects were compared using scales which were measuring state/trait anxiety, shame/guilt, deceit/manipulation, and defensiveness. Additionally, to identify the difference according to existence of lying, this study divided suspects into lie and truth group and further analyzed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2 groups. As a result, suspe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tate anxiety, higher defensive tendency, and lower deceptive tendency than ordinary people,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lie and truth group. This implies feeling higher anxiety and having positive impression management with high defensive and low deceptive tendency at the same time in suspects under lie detection situations. In addition, these results may predict that lie detection situations may not influence the results of lie detection test because suspects have simila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gardless of existence of lying.

Key words : lie detection, lie detection test, anxiet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mpression management

www.kci.go.kr